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IMF, “올해 미 경제 성장률 2.1%로 상향 조정”
- WSJ: 미 소비자들, “사회 정치적 입장 취하는 브랜드에 관심 적다”
- WSJ: 미 노년층, 기록적인 지출 점유율에다 금리에도 덜 민감
- Bloomberg: 미국인들 예상보다 수천억 더 많은 현금 저축

[미국 금융]

- WSJ: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11월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

[물류]

- WSJ: 미 소비 축소로 해운 운임료 하락

[한·미·중]

- CNN Business: 한국 기업들, 중국에 칩 장비 공급 무기한 유예

[주택]

- WSJ: 미 단독주택에 별채 추가하는 가정 늘어나다

[항공]

- CNBC: United Airlines,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110대 추가 주문

[글로벌 경제]

- Bloomberg: IMF, 2024년 인플레이션 견고한데다 글로벌 성장 약해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월마트의 온라인 의료 서비스, 60억 달러 의료비 지출 낮출 것
- CNBC: 월마트와 소프트뱅크, AI와 로봇공학에 ‘매료’
- WSJ: 크루즈 선사, 새로운 기후 규정에 앞서 친환경으로 탈바꿈 중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2023.10월\)](#)
-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일을 더 의미있게 만드는 4가지 방법들](#)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IMF Sees 'Softer Landing' for U.S. IMF, “올해 미 경제 성장률 2.1%로 상향 조정”

- 오늘 화요일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미국 GDP가 지난 여름 전망보다 0.3% 포인트 퍼센트 상승한 2.1%로 상향조정했다.
- 내년에는 0.5% 늘어난 1.5%로 전망했고, 내년 말 실업률은 예전 전망치 5.2% 보다 낮은 4%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미국의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2분기에 보다 강한 비즈니스 투자에 유연한 소비 성장으로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 시장을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반대로 유럽과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성장세를 전망했다. 유럽은 올해 0.7%, 내년에 1.2%. 그리고 중국은 올해 5%, 내년에 4.2%로 낮추었다.

WSJ 기사

WSJ: Consumers Are Less Interested in Brands Taking Stances on Sociopolitical Issues, Survey Finds 미 소비자들, “사회 정치적 입장 취하는 브랜드에 관심 적다”

- 미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임금 형평성, 의료 보험, 기후 변화 등에 조치를 취하기를 여전히 기대하지만 기업들의 사회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의 비즈니스 설문조사 내용이다.
-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1%는 일반적으로 기업체들이 현재의 시사 이슈들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했는데 이는 작년이 48%에서 줄어든 수치다. 연령과 인종 그룹에서도 이같이 감소했다.

WSJ 기사

WSJ: The U.S. Economy’s Secret Weapon: Seniors With Money to Spend 미 노년층, 기록적인 지출 점유율에다 금리에도 덜 민감

-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지출이 회복력이 있는 이유중 하나는 노년층 때문이다.
- 현재 미국 인구의 17%가 65세 이상인데 이들의 재정상태는 건강하고 주택 구입 등의 용자 필요성이 적는데다 다른 소비자들에 비해 해고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 작년 이들 계층의 지출은 점유율이 22%로 관련 합계를 시작한 이후 기록적인데 지난 2010년 의 15%에서 점유율이 크게 늘었다고 노동부 최근 발표에서 나타났다.
- 내년에도 중요한 소비층이 될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WSJ 기사

Bloomberg: Americans Have Saved Hundreds of Billions More Than Previously Thought 미국인들 예상보다 수천억 더 많은 현금 저축

- 정부와 관련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수천억 달러 더 많은 금액을 모아둔 상태로 나타났다.

- 시티그룹의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Robert Sockin은가계가 보유한 저축액은 1조달러에 달하며 이는 점차 증가하는 추정치와 일치하는 수치라는 것.
- 그는 이같은 미국인 소비력이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연착륙 가능성을 당초의 50% 보다 높은 수치에서 이제는 50대 50으로 보고 있다는 것.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Fed Officials Head Toward Another Pause After Bond Yields Surge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11월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

- 연준 고위 관리들은 미 국채 수익률이 최근 급등 이후에 금융시장 긴축 여건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연준 부의장인 Philip Jefferson은 어제 한 컨퍼런스에서 향후 정책 경로는 평가하는 가운데 “채권 수익률 상승을 통한 금융 긴축 여건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해 최근 다른 정책 결정자들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연준 관리들의 주요 관심사는 최근의 차입 비용(금리) 증가가 경제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금리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단순한 추가 보상인지 여부라는 것이다.
- 이번 분석에 따르면 아마도 11월 1일에 있을 금리 결정 여부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WSJ 기사

[물류]

WSJ: Ship Freight Rates Tumble as U.S. Consumers Buy Fewer Goods 미 소비 축소로 해운 운임료 하락

- 요지: 대형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은 비즈니스를 줄이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 간에 가격 인하 전망에 직면에 있다.
- 해상 운송비가 팬데믹 최고치에서 급락하고 미국인과 유럽인이 소비재 구매를 줄이는 상황에서 화물 운송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 9월 아시아에서 미국과 유럽행 운송 일일 시장 가격이 지난 2022년 초에 비해 90% 하락했으며 선상입장에서 최근 운임으로는 수익이 자주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대형 컨테이너 운송업체들이 올해 중국 항만에서 미 서부로의 운항이 크게 취소된데다 이번달에 중국의 황금연휴에 따른 제조

현장의 중단으로 추가 취소가 이어질 예정이다.

WSJ 기사

[한·미·중]

CNN Business: South Korean firms get indefinite waiver on US chip gear supplies to China

한국 기업들, 중국에 칩 장비 공급 무기한 유예

- 어제 월요일 한국 대통령실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하니닉스는 미국의 별도 승인없이 무제한으로 중국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공급이 허용될 것이라는 것.
- 미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급을 위한 라이선스 요건 유예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은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중국에서의 운영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관리 전략을 조용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은 이미 삼성전자와 SK 하니닉스에 이 결정을 통보했다고 그는 전했다.

CNN Business 기사

[주택]

WSJ: Tiny Homes Are the Hot New Homeowners' Accessory

미 단독주택에 별채 추가하는 가정 늘어나다

- 이 추가 건물들은 ADU(accessory dwelling units)으로 알려졌다. ADU는 스튜디오 아파트 정도의 작은 사이즈 정도로 뒷마당 같은 곳에 지을 수 있는 독립건축물이다. 심지어 차고 위나 지하에 만들 수 있으며, 2천 피트 이상 확장할 수도 있다.
- ADU는 대중에 인기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주들이 구획을 변경하면서 ADU의 건축을 장려하고, 주택 소유자들이 ADU의 임대를 통해 부동산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Freddie Mac의 한 연구는 2020년에 미국의 140만 단독주택이 ADU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으며, 실질적인 숫자는 더 높을 수 있다.
- ADU의 확산은 미국의 주택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이 주택 부족과 높은 주택 가격에 고심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책 입안자들은 ADU처럼 별채를 추가하는 것이 공급 주택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WSJ 기사

[항공]

CNBC: United Airlines buys 110 additional Boeing, Airbus jets into the 2030s with delivery slots scarce**United Airlines,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110대 추가 주문**

- United Airlines이 보잉과 에어버스 110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10년간 항공기에 대한 강한 수요와 앞으로 발생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ited Airlines가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 United Airlines는 보잉 787-9 Dreamliners에 50대와 Airbus A321neos에 60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이 기업은 이미 Airbus 321의 120대와 Dreamliners에 100대를 주문해 놓은 상태이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IMF Warns of Stubborn Inflation and Weaker Global Growth in 2024**IMF, 2024년 인플레이션 견고한데다 글로벌 성장 약해**

- IMF는 내년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중앙은행들에 물가 상승이 확실히 완화되기 전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 오늘 화요일 공개된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IMF는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 5.8%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3개월 전의 수치인 5.2%보다 올라간 것이다.
- 한편, IMF는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정학적 블록이 분열되는 것에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 IMF는 올해 무역 성장률이 0.9%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지난 7월의 2%에서 떨어진 수치이다. 코로나 이전의 지난 20년간 세계 무역 성장률은 4.9%였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Walmart Bets Online Doctors Will Lower Its \$6 Billion Health Care Tab**월마트의 온라인 의료 서비스, 60억 달러 의료비 지출 낮출 것**

- 월마트가 종업원 건강 보험(employee health insurance plan)에 가입한 백만여명의 직원들에게 온라인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월마트의 의료 사업 분야의 성과를 향상하고,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런 시도는 얼마나 많은 의료 서비스가 인터넷상으로 옮겨질 수 있는가에 대한 큰 시험대로 보인다.
-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월마트는 Included Health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월마트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10월 1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의료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런 온라인 의료서비스는 이미 미국 내 20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었으며, 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의료 비용을 대략 10%까지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을 낮추는 등의 의료 조치 측면에서 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loomberg 기사

CNBC: The big AI and robotics concept that has attracted both Walmart and Softbank

월마트와 소프트뱅크, AI와 로봇공학에 '매료'

- 대부분의 투자자는 소프트뱅크의 인공지능에 대한 큰 투자는 최근 상장한 회사 Arm Holdings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한다.
- 그러나, 또 다른 투자 대상은 Symbotic이다. 이 기업은 월마트, 타겟 그리고 Albertson 같은 주요 소매업체들에 인공지능 기반의 창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Symbotic의 주가는 올해 거의 190% 가까이 상승했으며, 월마트는 상품을 포장하는 42개의 지역 자사 물류센터를 자동화하기 위해 Symbotic과 계약을 맺었으며, 그 일환으로 이 기업의 11% 지분을 가지고 있다.

CNBC 기사

WSJ: Cruise Lines Pursue Greener Journeys Ahead of New Climate Rules

크루즈 선사, 새로운 기후 규정에 앞서 친환경으로 탈바꿈 중

- 글로벌 크루즈 산업이 새로운 기후 규정에 앞서 친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선, 높은 연료 비용, 부족한 재생가능 에너지, 그리고 환경 단체와 규제 당국들의 압력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크루즈 운영사들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새로운 배들을 구매하고, 더 효율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선박의 디자인을 바꾸고 있으며, 유독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배가 정박할 때 사용되는 전기 선박 연결장치(electricity hookups)를 추가하고 있다.

- 선사들은 또한 글로벌 규제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오늘날 건조되는 배들은 앞으로 수십년간 운행에 사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글로벌 규제에 더 빠르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보고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2023.10월)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보고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4 Ways to Make Work More Meaningful
일을 더 의미있게 만드는 4가지 방법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업무가 의미 있고, 그 업무가 의미를 가지길 원한다. 핵심은 호기심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자신과 업무와 그리고 동료들에게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1) 업무 만들기 (2) 장인정신 가지기 (3) 업무와 서비스를 연결짓기 (4) 긍정적인 관계에 투자하기다.

업무 만들기

업무에 의미를 붙여넣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업무 만들기’이다. 현재의 업무에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에서 자신의 열정, 개성, 그리고 흥미를 업무에 녹여보는 것이다. 먼저, 자신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린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보라.

- 업무의 어떤 부분을 의미있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 어떻게 현재의 업무를 다르게 수행할 수 있는가
- 현재 자신의 업무가 최선의 방법으로 직장과 고객들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과가 좋았던 경험을 기록해보자. 그리고 그때의 방법을 현재의 업무에 반영해보고 효과가 좋은지 확인해보는 것이다. 자신에게 의미가 있으면서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장인정신 가지기

업무를 더 의미있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장인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완벽한 업무처리와 지속적인 발전은 업무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을 성취감을 준다. 업무에서 어떻게 장인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자기 발전과 자신의 업무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여기서 나온 새로운 도전들을 수용하고, 어렵고 고도 까다로운 것들을 성취해보자. 내가(저자) 맥킨지에 근무했을 때로 예를 들면 멋진 공식을 갖춘 탁월한 엑셀 파일을 만드는 것일 수 있겠다. 호기심만이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다음의 질문들에 답해보라.

- 탁월함을 요구하는 핵심 업무가 무엇인가
-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 업무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자신이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며, 최고가 되기 위해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업무 중에 같고 닦고 싶은 업무를 선택하라. 당신의 업무에서 중요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다. 다음,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5~10가지 방법을 만들어 평가해보자. 매일 매일 기록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이 발전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업무와 도움을 연결짓기

많은 연구가 '타인을 돕는 행위'가 행복과 만족감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저자) 또한 동료들과 함께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거나 아이들에게 독서활동을 지도하는 'Habitat for Humanity Home' 단체를 만들었을 때 만큼이나 의미를 느꼈던 적이 없다. 먼저, 우리가 평상시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깊은 호기심이 필요하다. 다음의 질문들을 고려해보라.

- 나의 고객들은 누구인가
- 그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 고객들의 만족을 방해하고 있는 핵심 장애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내 도움을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 어떻게 보상 심리 없이 그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
- 오늘 내가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구체적으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2~3명의 사람을 선정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긍정적인 관계성 투자하기

사회 과학 문헌에 따르면, 다른 이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만큼이나 행복에 중요한 건 없다. 직장에서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훌륭한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직장이나 집에서의 관계는 공감과 호기심에서 비롯하기 마련이다.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배려와 존중은 존재할 수 없다.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보라.

- 누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 것인가
-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그들의 불편사항과 감정 그리고 목적은 어떠한가
- 평상시 그들의 기분은 어떠한가
- 그들은 지적으로 무엇에 관심있어 하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가보자.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돼 의미있는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그들에 대해 더 알아가는 노력을 해보자. 업무가 아닌 서로의 관계 위해 시간을 내어 그들과 대화하고 교류할 필요가 있다.

번역: 전성엽

하버드 비즈니스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8% 향하는 미국 모기지 금리..."주택 수요 빠르게 식어"

최근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속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를 향해 가면서 미국의 주택 수요가 얼어붙고 있다.

CNBC방송은 4일(현지시간) 모기지 뉴스 데일리(News Daily)를 인용해 시중에서 인기 있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전날 7.72%를 찍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연초만 해도 6% 수준으로 떨어지며 봄철 주택시장을 반짝 데운 바 있지만, 여름을 지나며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주택 매매 건수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